하나은행

Hana FX Weekly Letter

달러/원·엔·유로환율·금리·주식

외환파생상품영업부

2025. 12. 1

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,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,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.

주간 달러/원 동향(11/24~11/28)및 전망

주간 달러/원 동향

- 주초, 연준 금리인하 전망에 힘을 실은 뉴욕 연은 총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달러인덱스 하락하자 환율은 하락 출발했으나, 매수 우위 수급에 반등. 이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 출범 등 당국 경계감 강화된 가운데 고점 인식에 따른 수출업체 매도물량 유입되면서 하락 전환
- 중반, 비둘기 성향의 연준 차기 의장 후보 거론되는 등 달러 약세 분위기에 1,450원대로 저점 낮췄으나,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총리 발언에 낙폭 일부 되돌림
- 후반, 11월 금통위에 대한 매파적 인식과 한은 총재의 시장 안정 의지 속에 원화 지지력 보이며 소폭 하락. 이어 주 후반,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2조원 넘게 유출된 영향에 상승 전환하며 1470.6원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,472.0	1,477.3	1,457.0	1,470.6	-1.4

달러/원 전망

- 금주 달러/원 환율은 되살아난 연준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과 높아진 당국 경계감 등에 하락 압력 받을 것으로 전망
- 연준 주요 인사들이 12월 금리인하를 지지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시장의 추가 인하 기대감 회복된 측면이 달러 약세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
- 여기에, 국민연금과 외환당국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 개시 등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되며 당국의 강한 의지 드러난 점이 상단 경계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
- 다만, 수입업체 결제 및 해외투자 환전 등 달러 수요 지속되며 수급 쏠림 완화되지 않고 있어 하단 견고하게 지지될 것으로 예상

예상거래범위
1,460원 ~ 1,475원

유로•엔화 동향 (11/24~11/28)

유로화 동향

- 주초, 연준 주요 당국자들의 12월 금리인하 지지 연설 이어지는 가운데, 인플레이션 압력이 잔존해있다는 나겔 분데스방크 총재의 발언이 대비되면서 유로화는 강세 출발. 이어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러-우전 종전 기대감 크게 유입되면서 유로화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
- 중반, 유로존 11월 서비스업 심리지수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이전 대비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인 점에 힘입어 강세 흐름 지속
- 후반, 인플레이션 주기 고려했을 때 현재 좋은 금리 수준에 있다는 라가르드 ECB 총재 발언에 금리인하 사이클 중단될 것이란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림. 이에 달러 대비 강세 흐름 이어가며 1.16달러대 재진입 후 마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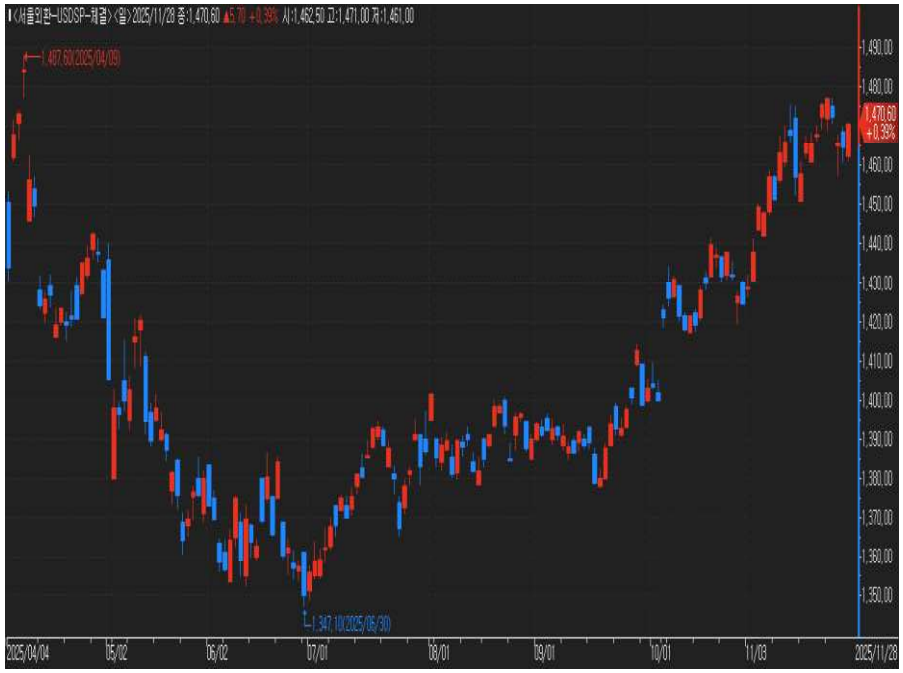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.1518	1.1613	1.1502	1.1600	-0.0082

엔화 동향

- 주초, 엔저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당국 관계자의 발언에도 엔화는 약세 출발.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참모인 해싯 NEC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될 가능성 제기되자, 미 국채금리 하락 및 달러 약세 나타난 영향으로 반등
- 중반, BOJ가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부상했으나, 일 정부의 추경 예산안 승인 앞두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지속되면서 약세
- 후반, 일본 산업생산 및 소비 데이터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크게 개선된 가운데, 우에다 총재 연설을 앞두고 금리인상 시그널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 유입되자 강세 전환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56.4	157.2	155.7	156.1	-0.3

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(11/24~11/28)



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

- 초반,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비둘기파 발언을 반영 강세 출발한 국고채 시장은 1,470원대까지 상승한 환율 부담 등으로 하락 분 반납하며 상승 전환. 이어 차기 연준 의장 후보인 월러 연준 이사의 노동시장 우려에 대한 금리인하 지지 발언 속에 국내 외국인 투자자의 10년 국채선물 순매수 확대 등으로 하락 전환 양상 시현
- 중반 들어, 금통위에 대한 관망과 경계감 속에 소폭 하락 전환 양상
- 후반 들어, 11월 금통위 결과가 매파적이었다는 시장 다수의 평가 속에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지난 7월 이후 3.0%를 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낸 가운데, 주 후반, 장중 변동성 확대 속에 국고채 금리는 소폭 하락 전환하는 양상 나타내며 마감

주간 증시 동향

- 초반, 뉴욕 연은 총재의 금리인하 가능 언급에 따른 12월 금리인하 확률 재상승 등이 뉴욕금융시장 강세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코스피도 동 영향 반영 속 상승 출발. 하지만, 장 후반 외국인 매도세 강화에 하락 전환한 국면. 이어 월러 연준 이사의 금리인하 지지 발언과 구글의 제미나이 3.0 호평에 따른 기술주 훈풍이 투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치며 상승 전환
- 중반 들어, 간밤 미 9월 소매판매가 시장 예상을 밑돈 가운데 9월 PPI가 시장 전망에 부합하면서 연준 12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측면을 반영, 뉴욕 금융시장 호조 속 코스피도 상승 폭을 키우는 국면 시현
- 후반 들어, 뉴욕금융시장 강세에도 한은 금통위 금리 동결 결정과 향후 금리인하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파적 입장 등의 영향으로 하락 전환 이어 주 후반, 금융당국 코스닥 활성화 대책 검토 소식에 코스피 수급이 약화한 가운데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등으로 크게 하락하며 마감